전세계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김 일 성

동명왕릉을 잘 꾸릴데 대하여

동명왕릉과 동명왕릉건설 총계획사판,

도면을 보고 일군들과 한 담화

1989년 4월 2일, 14일

동명왕릉도 돌아보고 동명왕릉건설 총계획사판과 도면도 보았는데 릉을 개건하기 위한 사판과 도면을 괜찮게 만들었습니다. 동명왕릉의 부지를 넓게 잡고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어 고적맛이 나게 한것도 잘하였고 왕릉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평양—원산사이 고속도도로에서 직선으로 넓게 내기로 한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동명왕릉을 잘 꾸려놓고 우리 인민들도 교양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합니다.

동명왕릉은 고구려시조왕의 무덤으로서 우리 나라 력사와 문화전통을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력사유적입니다. 고구려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제일 강대한 국가였고 오랜 기간 존재한 봉건국가였습니다. 동명왕은 고구려를 건국한 시조왕입니다.

물론 우리 나라에 세워진 첫 국가는 고조선입니다. 그러나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단군에 대하여서는 지금까지 신화로만 전해져 내려오고있습니다.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실재한 인물인가 신화적인물인가 하는것은 력사학자들이 앞으로 더 해명해야 할 문제입니다. 단군에 대해서는 신화적인물로 전해지고있지만 고구려를 건국한 시조왕인 고주몽은 실재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무덤인 동명왕릉을 잘 꾸려놓고 고구려력사가 동명왕때부터 시작되였다는것을 우리 인민들은 물론, 다른 나라 사람

들에게도 선전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 고분을 비롯하여 력사유적이 많지만 조상의 무덤으로서 내세울만한것은 동명왕릉밖에 없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나는 해방직후부터 동명왕릉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려왔습니다. 지난날 우리 사람들속에서 평양시 력포구역 무진리에 있는 릉이 동명왕의 무덤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론쟁이 많았습니다. 그때 사대주의에 물젖은 일부 사람들은 고구려사람들이 수도를 중국의 집안에서 평양으로 옮길 때 시조왕의 무덤을 옮겨오지 않았다느니, 동명왕의 무덤이 집안에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무진리에 있는 릉을 동명왕의 무덤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주장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로부터 조선사람들은 다른고장으로 이사갈 때 다른것은 못가져가도 조상의 유골만은 가지고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당시 매우 강대한 나라였는데 고구려사람들이 수도를 옮기면서 시조왕의 무덤을 옮겨오지 않았을리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진리에 있는 릉이 고구려의 시조왕인 동명왕의 무덤이 옳을것이라고 생각하고 력사학자들에게 그 무덤을 발굴해볼데 대한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후 김일성종합대학 교원들과 학생들이 무진리에 있는 무덤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조사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 귀중한 유물들을 많이 발굴하였고

그 릉이 동명왕의 무덤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확증하였습니다.

지난날 봉건통치배들과 사대주의자들에 의하여 우리나라 력사가 외곡된것이 적지 않습니다. 한때 사대주에 물젖은 봉건통치배들은 중국에서 《기자》라는 사람이 조선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였다는 반동적인 사가들이 조작한 허위적인 내용을 선전하면서 모란봉에 《기자묘》라는것까지 만들어놓고 그것을 숭배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 나라에 와서 최초의 국가를 세웠다는것과 그의 묘가 모란봉에 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기자묘》라고 하는 무덤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것을 파보게 하였습니다. 그 묘를 파보니 거기에는 깨진 벽돌쪼각이 몇개 있을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자묘》가 흙무지에 불과한 가짜 묘라는것이 드러났으며 그밖의 여러가지 력사적자료에 의하여《기자》설이 조작된 거짓말이라는것이 밝혀졌습니다.

동명왕릉을 잘 꾸리는것은 일부 나라들에서 우리 나라 고구려시기의 력사자료들이 외곡되여 류포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지난 시기 사대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의 력사를 큰 나라의 비위에 맞게 망탕 고쳐놓았기때문에 고구려의 건국년대도 정확히 알수 없었습니다. 동명왕릉이 고구려시조왕의 무덤이라

는것이 고증되였고 고구려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것이 실제적인 자료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해명된 조건에서 우리는 동명왕릉을 잘 꾸리고 고구려력사를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민들뿐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나라 력사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줄수 있으며 반동사가들이 더는 우리 나라 력사를 외곡선전하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동명왕릉을 잘 꾸리는것은 앞으로 북과 남사이에 다방면적인 교류가 실현되여 남조선사람들이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올 때 그들에게 우리 민족의 유구하고 자랑스러운 력사를 알려주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사들은 북과 남이 력사와 어학분야에서 교류를 하자고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공화국북반부에 왔던 문익환목사는 나에게 《우리 말 갈래사전》과 《죽음을 살리자》라는 책을 선물로 주면서 앞으로 북과 남의 학자들이 모여 우리 말과 우리 나라 력사에 대한 연구사업을 같이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의 의견을 찬성하였습니다. 문익환목사가 우리한테 왔다가 남조선에 나가자마자 체포되여 감옥생활을 하고있는데 석방되면 북과 남사이의 문화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조선의 력사학자들이 공화국북반부에 들어

오면 우리 나라 력사문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동명왕릉을 비롯한 고구려시기의 유적과 개성에 있는 고려시기의 유적들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고구려와 고려 시기의 력사에 대하여 똑똑한 인식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명왕릉을 잘 꾸려놓고 앞으로 남조선학자들뿐아니라 남조선청년학생들에게도 보여주고 해외동포들에게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조선사람이라면 남조선에서 살건, 미국이나 카나다에서 살건 공화국북반부에 오면 누구나 다 동명왕릉을 찾아보려고 할것입니다. 조선사람으로서 자기 시조왕의 무덤을 찾아보는것은 응당한 도덕이며 례의입니다.

우리가 력포구역 무진리에 있는 릉이 고구려시조왕의 무덤이라는것을 확증한지는 오래되였지만 초라하고 볼품이 없기때문에 지금까지 내놓고 널리 선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일군들이 동명왕릉을 지금까지 잘 꾸려놓지 않은것은 잘못입니다. 동명왕릉을 꾸리는 사업이 좀 늦기는 하였지만 이제라도 달라붙어 빨리 잘 꾸려놓아야 하겠습니다.

동명왕릉을 개건하자면 품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러나 동명왕릉을 개건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고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적긍

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중요한 사업인것만큼 아무리 품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어도 힘을 넣어 잘 꾸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먼 후날에 가서도 우리의 후대들이 다시 손을 대지 않도록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하게 꾸려야 합니다.

동명왕릉을 다시 꾸리는데서 중요한것은 고구려의 시조왕릉답게 크고 품위있게 꾸리면서도 내용이 있고 력사주의적원칙에 맞게 꾸리는것입니다. 력사학자들과 미술가, 건축가, 설계가들이 있는 지혜와 재능을 다 발휘하여 왕릉을 력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리치에 맞게 그리고 고구려맛이 나게 꾸려야 하겠습니다.

왕릉으로 올라가는 길을 좌우로 에돌아가게 내지 말고 제당이 있는곳으로 곧바로 올라가게 내고 계단을 만들어놓는것이 좋겠습니다. 왕릉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현대적이면서도 숭엄한 맛이 나게 만들고 그 웃쪽 왕릉구역은 고적미가 나게 꾸려야 합니다.

왕릉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릉문을 세우고 사람들이 그 릉문을 통하여 왕릉으로 올라가게 하여야 합니다.

제당으로 쓰던 정자각이 초라한데 다시 잘 지어야 하겠습니다. 정자각을 봉건관료배들이 사대주의를 하여 그랬는지, 돈이 없어 그랬는지 보잘것 없고 성의없게 지어놓았습니다. 제당을 제자리에 지으면 왕릉앞을 가리울

수 있으므로 지금 있는 위치보다 좀 옆에 내다 크게 지으며 단청을 옛날맛이 나게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제당을 지은 년대는 원래의 년대를 쓰고 언제 다시 지었다고 설명문을 써놓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동명성왕비와 동명성왕기적비가 작은데 크게 만들어 세워야 하겠습니다. 지난날에 만든 동명성왕비와 동명성왕기적비를 크게 다시 만들되 비문내용은 그대로 옮겨써야 합니다. 그러나 비문에 있는 고주몽이 하백의 딸이라는 녀자가 해빛을 받아 임신하여 낳은 알에서 나왔다고 하는것과 같은 내용은 허황하고 의의가 없으므로 빼도 일없습니다. 글씨체는 옛날 글씨체로 쓰는것이 좋겠습니다. 력사주의적원칙에서 보아도 동명왕릉비문을 옛날 글씨체로 쓰는것이 좋으며 현재 쓰고있는 한문글씨체로 쓰면 안됩니다. 광개토왕비문의 글씨체를 본따서 동명성왕비와 동명성왕기적비의 비문을 쓰는것이 좋겠습니다. 비문내용을 우리 말로도 번역하여 써놓아야 합니다.비문을 한문으로만 써놓으면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무슨 내용인지 알수 없습니다.

동명성왕비문은 고려시기의 학자였던 리규보가 쓴 것으로 되여있는데 동명성왕비를 다시 만들어 세울 때 본래비를 만들어 세운 년대를 그대로 밝혀놓아야 합니다.

동명성왕기적비는 리조시기 세종때 세운것이라고 하

는데 리조의 력대왕들가운데서 나라의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왕은 세종대왕이였습니다. 그는 우리 나라 민족글자인 훈민정음도 만들어냈고 민족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나라 력대왕들가운데서 세종대왕을 제일 높이 평가합니다.

리조시기에는 세종대왕때와 세종의 둘째아들인 세조왕때에 나라가 번성하였습니다. 리조실록에도 리조 4대왕인 세종대왕과 7대왕인 세조왕때에 나라가 번성하였다는 자료들이 기록되여있습니다. 세조왕때에 희귀한 날짐승인 흰까치가 나타났댔다고 합니다.

최근에 평양지방에 흰까치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얼마전에 흰까치를 발견하였는데 일부 일군들은 그 까치가 달아나버리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하면서 미리 잡아 박제품을 만들어두는것이 좋겠다고 하기때문에 그것을 잡지말고 얼마나 오래 사는가 하는것을 관찰하여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흰까치를 사진도 찍어두고 록화촬영도 하여두라고 하였습니다. 흰까치가 나타났다는 글과 사진이 신문에도 소개되였습니다.

나는 흰까치가 처음보는 희귀한 날짐승이기때문에 김일성종합대학과 중앙동물원에 있는 동물학자들에게 흰까치가 어떻게 되여 생겨났으며 우리 나라에 있었던적이 있는가 하는것을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구

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리조실록을 들추어보니 거기에 세조왕 10년에 전라도 곡성현에 흰까치가 나타났다는것과 전라도 관찰사가 그와 관련하여 왕에게 상전문을 올려 축하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여있다고 하였습니다. 상전문에는 왕이 인과 의로 훌륭한 정사를 베푸니 아름다운 상서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때에 사람을 잘 따르며 빛갈이 흰 상서로운 새가 나타나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모두 기뻐서 춤을 추었다고 씌여져있습니다. 세조왕때에 나타났던 흰까치가 500여년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흰까치가 매일 내가 지나다니는 길옆에 날아와서앉아있군합니다.

동명성왕비와 동명성왕기적비를 다시 크게 만들어 세울 때 거기에 비를 처음 세운 년대를 밝혀놓고 동명왕릉을 참관하는 사람들에게는 동명성왕비와 동명성왕기적비를 언제 세웠는데 릉을 개건하면서 비를 다시 크게 만들어 세웠다는것을 설명하여주는것이 좋겠습니다.

동명왕릉을 개건하는데서 기본은 왕릉을 잘 꾸리는것입니다. 왕릉을 잘 꾸려놓지 못하면 다른것들을 아무리 잘 만들어놓아도 그것이 빛이 나지 않습니다.

동명왕릉은 본래의 무덤을 원상대로 보존하면서 봉분만 지금보다 좀더 크게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왕릉을 크게 만든다고 하여 봉분의 크기를 주관주의적으로 망탕

크게 해서는 안됩니다. 왕릉의 봉분이 원래 얼마나 컸는가 하는것도 고증해보고 중국의 집안에 있는 고구려왕릉들의 크기도 참고로 하여 봉분의 크기를 정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왕릉의 기초도 더 든든하게 하고 기단돌이 허물어진것도 다시 잘 쌓아야 합니다. 왕릉의 기단돌과 봉분을 복원할 때 기단을 몇단으로 하겠는가 하는것도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왕릉의 봉분을 크게 하자면 기단돌을 지금것보다 좀 크게 만들어 쌓아야 할것입니다.

동명왕릉앞에 세운 돌조각상들을 고구려식으로 다시 만들어 세워야 하겠습니다. 지금 왕릉앞에 있는 돌조각상들은 초라해보이고 미신적인 감이 납니다. 릉앞에 세운 문관과 무관 돌조각상을 보아도 고구려시기의 사람답게 형상하지 못하였고 지내 작습니다. 문관과 무관이 쓰고있는 모자도 고구려식이 아닌것 같습니다. 왕릉앞에 세우는 돌사람이나 돌말은 고증을 잘하여 력사적사실에 맞게 형상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얼굴형태와 키, 복장 그리고 말들에 씌우는 갑옷 같은것은 력사적시기마다 서로 다릅니다. 돌사람이나 돌말을 고구려시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되는대로 만들어 세우면 안됩니다.

고구려시기의 벽화를 비롯한 력사유물과 력사자료들을 보고 당시 사람들의 얼굴모습과 옷, 모자, 무기 형태

를 고증한데 기초하여 문관과 무관의 돌조각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관은 고구려때의 복장을 하고 무기를 들고 있는것으로 형상하여야 합니다.

동명왕릉에 돌말도 다시 만들어 세워야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돌말은 작고 볼품이 없습니다. 돌말을 고구려의 기상을 보여줄수 있도록 잘 형상하여 세워야 합니다. 동명왕릉에 돌말을 잘 만들어 세우는것은 력사주의적원칙에서 보아도 맞습니다. 고구려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말타기와 활쏘기를 즐겨하였고 말을 타고 무술을 익히는것이 그들의 관습으로 되여있었습니다. 돌말은 문관과 무관의 돌조각상 수에 맞게 만들어 세워야 하겠습니다. 무관이 타고다니던 말은 크고 날파람있어 보이게 만들며 문관이 타고다니던 말은 보통말로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문관이 타고다니던 말은 보통말로 보이게 만들어 세워도 일없습니다. 돌말은 문관과 무관의 돌조각상보다 좀 뒤에 세우는것이 좋겠습니다.

동명왕릉앞에 돌양을 2개 만들어 세워놓은것이 있는데 그것은 없애야 하겠습니다. 동명왕릉에 돌양을 만들어 세울 력사적근거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양은 조선사람의 생활과 별로 인연이 없는 짐승이였습니다. 고구려사람들은 양을 많이 기르지 않았으며 양고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람들은 양고기를 냄새가 난

다고 하면서 잘 먹지 않습니다. 동명왕릉에 돌양을 만들어 세운것은 고려의 공민왕릉에 돌양을 만들어 세운것을 보고 그것을 본따서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그전에 내가 공민왕릉에 가본 일이 있는데 왕릉주변에 돌양을 여러개 만들어 세워놓은것이 있었습니다. 공민왕은 몽골녀자를 데리고 살았는데 몽골사람들이 양을 좋아하였기때문에 왕과 왕비의 무덤인 공민왕릉주변에 양을 만들어 세워놓았을것입니다. 동명왕릉에 60갑자의 12지에 있는 《미》가 양의 해라고 하여 양을 만들어 세웠다고 볼수도 있지만 동명왕이 태여났거나 죽은 해가 양의 해라는 기록이 없는 조건에서 그것도 믿기 곤난합니다. 동명왕릉에 돌양을 세우는것이 력사적근거도 없고 아무런 의의도 없는 것만큼 돌양은 세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동명왕릉옆에 돌범을 위엄있게 잘 만들어 세워야 하겠습니다. 지금 동명왕릉좌우에 있는 돌범은 잘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있는 돌범은 없애고 몸통도 크고 꼬리도 길게 다시 잘 만들어 세워야 합니다. 예로부터 범은 조선의 용맹을 상징하는 짐승이기때문에 조선범의 특징을 생동하게 살려 잘 형상하여야 합니다. 범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모습이 달라진것이 없는것만큼 력사적으로 고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돌범을 왕릉의 기단높이만큼 크게 만들어 세우되 릉 한쪽에는 수펌을 만들어 세우

고 다른쪽에는 암펌을 만들어 세우는것이 좋겠습니다.

동명왕릉앞에 있는 석등도 좀 크게 다시 만들어 세워야 하겠습니다. 석등기둥도 좀 굵게 만들고 등갓도 더 넓게 만들며 석등의 높이도 왕릉높이와 어울리게 하여야 합니다.

동명왕릉표식비가 1892년에 만들어 세운것이라고 하는데 너무 작습니다. 지금 표식비가 기단돌우에 있는데 거기에 그냥 두겠는가 하는것을 토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동명왕릉표식비를 좀 크게 만들어 릉앞에 내다세우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동명왕릉상돌도 왕릉에 비하여 작은 감이 있습니다. 릉봉분을 지금보다 더 크게 하면 릉보다 상돌이 지내 작아보일수 있으므로 상돌을 왕릉과 비례가 맞게 만들어놓아야 하겠습니다. 상돌을 크게 만들란다고 하여 현대식으로 만들지 말고 옛날식으로 만들어놓아야 합니다. 상돌받침돌도 상돌크기에 맞게 좀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동명왕릉주변에 여러가지 돌조각상을 다시 만들어 세울 때 왕릉의 크기와 비례가 맞게 만들어 세워야 합니다. 돌조각상들을 지내 크게 만들어 세우면 왕릉이 볼품이 없게 됩니다.

동명왕릉에 있는 비석들과 제당, 돌조각상들을 다시 만들고 위치를 옮기는것은 건축가들이 주관주의적으로

망탕 설계하여 하지 말고 반드시 력사학자들과 토론하여 력사주의원칙에 맞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릉사를 복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릉사는 동명왕릉을 위하여 세웠던 건물이였던것만큼 그것을 복구해놓아야 고구려시조왕릉으로서의 면모가 더 잘 살아날수 있습니다.

정릉사자리의 면적이 총 3만평방메터이면 대단합니다. 옛날에 정릉사를 8각탑을 중심으로 하여 동쪽에는 동금당, 서쪽에는 서금당, 북쪽에는 중금당을 배치하는 원칙에서 지었으면 그 절간이 고구려의 고유한 1탑3금당식건물입니다. 6세기경에 지은 신라의 《황룡사》와 일본의 《아스까사》도 정릉사와 같이 1탑3금당식건물이기때문에 남조선사람들과 일본사람들도 그것이 고구려문화의영향을 받은것이라는것을 인정하고있습니다.

정릉사건물터를 보면 정릉사의 중심축이 왕릉의 중심축과 일직선상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정릉사를 왕릉의 중심축과 일직선으로 맞추어 복구하면 정릉사가 왕릉의 앞을 가리워 좋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왕릉의 앞이 가리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정릉사를 왕릉의 중심축과 맞추어 건설하지 않고 한쪽으로 약간 치우치게 건설한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정릉사를 왕릉의 중심축과 일직선으로 맞추어 건설하지 말고 지금 발굴

된 자리에 그대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정릉사를 복구할 때 앞에 있는 개울건너까지 건물을 짓지 않아도 됩니다. 정릉사건물은 본래 있던 집터자리에 축을 맞추어 꼭 필요한것만 복원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릉사를 복원한 다음 거기에 유물진렬관을 하나 잘 꾸려놓는것이 좋겠습니다. 유물진렬관을 꾸려놓으면 동명왕릉을 참관하러 온 사람들이 왕릉을 돌아본 다음 거기에 들려 고구려시기의 유물들을 실물로 보게 할수 있습니다. 동명왕릉에 왔다가 그저 무덤이나 한바퀴 돌아보고 가서는 고구려의 력사를 잘 알수 없습니다. 진렬관에 동명왕릉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비롯하여 고구려시기의 유물들을 진렬해놓고 동명왕릉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좋아할것입니다. 지금 동명왕릉앞에 유물전시관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유물이 얼마 없고 건물도 력사유적전시관으로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건물은 앞으로 차집으로나 리용하고 정릉사에서 제일 큰 건물인 강당을 유물진렬관으로 꾸리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정릉사를 복구하여놓고 그냥 비워둘 필요는 없습니다.

정릉사와 제당, 릉문을 비롯한 건물들을 건축학적으로 보아도 고구려식건물이라는것이 안겨오게 잘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명왕릉주변과 앞산에 있는 무덤들도 잘 꾸려야 하겠습니다. 동명왕릉주변에 있는 무덤들이 고구려시기의 무덤이라는 자료적근거가 있는것만큼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라는것을 밝히고 동명왕릉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어느 대신의 무덤이고 저것은 어느 장군의 무덤이라고 설명하여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명왕릉주변에 있는 소나무들을 잘 관리하여 벌레가 먹지 않도록 하며 나무를 더 많이 심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동명왕릉이 있는곳에는 큰 소나무가 좀 있지만 그 주변에 나무가 많지 못하기때문에 동명왕릉이 오랜 력사를 가진 고적이라는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동명왕릉주변에 큰 소나무와 여러가지 나무가 우거져야 동명왕릉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왕릉구역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나라 력사에서 가장 강대하였던 고구려의 시조왕무덤을 찾아온다는 숭엄한 감정을 가지게 할수 있습니다. 나무를 동명왕릉이 있는곳에도 더 심고 설매동등판을 비롯한 그 주변지역에도 많이 심어야 하겠습니다. 설매동등판에 나무를 많이 심으면 부침땅이 좀 없어질수 있는데 고구려시조왕릉을 꾸리는 사업인것만큼 아까울것이 없습니다.

동명왕릉주변에는 작은 나무를 심지 말고 큰 나무들을 심어야 합니다. 작은 나무를 심어 크게 자래우자면

시일이 오래 걸려야 합니다. 동명왕릉주변에 심을 나무는 지금 전국에서 광복거리에 심을 나무를 떠서 보내주는것처럼 도들에서 떠서 보내주게 하면 됩니다. 각 도들에 과업을 주어 동명왕릉주변에 심을 나무를 떠보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명왕릉을 꾸리는 사업과 관련하여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해당 기관들에 분담을 주는 문제는 정무원에서 잘 토론하여 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명왕릉을 꾸리는 사업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끝난 다음 인차 달라붙어 와닥닥 해제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력사연구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력사유적유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고증하며 국보적인 유적들을 잘 꾸려놓아야 합니다.

동명왕릉뿐아니라 안학궁을 비롯한 고구려시기의 유적들과 개성시에 있는 고려시기의 유적들도 잘 꾸려야 하겠습니다. 력사유적을 꾸리는데는 돈이 얼마 들지 않을것입니다. 설사 돈이 많이 든다고 하여도 돈을 아끼지 말고 력사유적들을 잘 꾸려놓고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와 민족문화를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합니다.